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세종
함께 만드는 행정수도

세종특별자치시의회

보도자료

제공일자	2026. 11. 12.(목)	**사진 · 영상**	사진(○), 영상(X)
보도일자	2026년 11월 12일(목)부터		
제 공	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	**윤성규**	☎044-300-7182

[5분 자유발언] 세종시의회 윤성규 의원
제각각 열리는 행사 · 축제,
세종의 매력을 높일 큰 그림 필요

- 통합 기획·공동 개최·종합 성과관리 등 행사·축제 운영체계 전환 촉구 -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성규 의원(조치원읍, 더불어민주당)은 12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행사·축제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, 지역의 특색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획·운영체계의 전환을 촉구했다.

윤 의원은 2025년 세종시가 206건의 주요 행사·축제에 약 74억원을 집행했지만,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체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. 특히 부서와 산하기관별로 행사를 개별 추진하면서 유사한 공연·체험 프로그램이 반복되고, 개최 시기와 주제까지 겹치는 등 행사 간 차별성과 연계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.

특히 최근 3년간 한글축제·복숭아축제·시민체육대회 행사 용역을 모두 관외업체가 맡은 점을 언급하며, 높은 입찰 참가 자격의 문턱으

로 지역업체가 대표축제 운영 경험을 축적할 기회마저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.

이에 윤 의원은 ▲시 차원의 행사·축제 통합 기획·조정 체계 구축과 관내업체 참여 확대 ▲유사 행사 연계·공동 개최를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▲행사·축제 전반의 종합 성과관리 및 차년도 기획·예산 연계를 제언했다.

끝으로 윤 의원은 “재정난이 지속되는 지금, 한정된 예산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”며 “개별 행사의 성공을 넘어 세종시 전체의 매력을 높이는 것, 그것이 세종시가 그려야 할 큰 그림”이라고 강조하며 행사·축제 운영체계의 과감한 변화를 촉구했다.